

계간 《간디IN》 2017년 봄 호(통권 41호)



더불어 행복한 사람

[gandhischool.org](http://gandhischool.org)





단합대회의 꽃, 이어달리기. 중등부 아이들이 다음 주자에게 전해질 바통을 쥐고 신나게 달립니다. 뒤쳐져도, 넘어져도 마냥 재밌습니다. 학교생활이 이어달리기만 같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학교 바깥에서도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땀 흘려 넘긴 바통, 잘 전해 주고 잘 잡아 주길 바라 봅니다.



차례

1부

- 여는 글 2 여는 글 :: 이한결 편집장
- 우리끼리 4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 박우제 기자

2부

- 배움 속으로 7 식구가 생겼어요 :: 인재형 선생님  
놀이, 책, 그리고 글쓰기로 성장했던 소년 시절  
:: 이병곤 교장 선생님

3부

- MSG 12 덕후들의 커밍아웃 :: 이한솔 기자
- 사실 17 아저씨, 누구세요? :: 최유경 기자
- 반가워요 후원인 21 프로 불편러들의 만남 :: 권윤서 기자
- 개 요즘 잘 지낸대? 24 개 요즘 잘 지낸대? :: 김에림 졸업생
- 화제의 인물 27 그는 절대 지적이지 않다? :: 이성민 기자
- 간.짬.소 34 스케줄러  
38 가을이  
43 기자 후기

# 여는 글

이한걸 편집장 (4학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리고 어린 코짙짙이로 들어와 지낸 지 어느덧 3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등부를 보내고 고등부로 올라오니 조금은 다른 느낌, 다른 시선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1학년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 고등 선배들은 참 무섭고 멀어 보였는데 지금 1학년들이 저를 그런 선배로 보는 것 같아 씩씩하기도 합니다. 언젠간 1학년과 친해질 수 있겠죠?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남자기숙사는 단체집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동체 약속을 어기거나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화두로 떠올랐던 것은 '선배'였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이 결국 후배들에게도 비춰진다는 이유와 선배들이 만든 문화가 곧 기숙사에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졸업해서 학교에 와도 후배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평화롭고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앞장서는 선배를 원하는 간디학교 속에서 우리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수없는 선배, 어색한 선배, 무서운 선배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다 그냥 직접 부딪혀 봅니다. 그러다가도 선배란

존재가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 같기만 해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각자 조금은 다른 모습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정한 개인이 원하는 '좋은 선배'란 틀에 갇히지 않게 노력해야 하겠죠. 간디인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 누군가의 선배입니다. 직장선배, 학교선배, 하다못해 인생선배까지 모두 선배이지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후배입니다. 선배한테 배운 것들이 후배에게도 이어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자의 학교생활을 되짚어 보면 선배들에게 얻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후배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신입기자에서 벌써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침체를 겪은 일상다반사도 다시

움직입니다. 침체의 원인을 부원들 모두가 얘기해본 결과. 보람 없고 재미없는 기사, 축 처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지적되었습니다. 편집장인 필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래서 이번 봄 호가 재밌고 보람찬 과정이었길 바라고 일상다반사도 활력 있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봄 호가 기자들에게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주변 없는 편집장은 속으로 끔끔 앓고만 있고 말이죠. 너무 고된 일이 되지 않게, 고되더라도 재밌는 일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일상다반사는 새로운 신입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 김서준 기자와 신입기자라고 하기엔 많이 작은 4학년 이재형 기자가 일상다반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두 기자가 일상다반사의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활력이 없든 있든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기자들은 마감을 지키지 못합니다. 필자가 기자였을 때 마감을 독촉하던 편집장들의 입장이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편집장의 본분은 마감을 독촉하는 일. 그러나 이렇게 독촉해놓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편집장은 외장하드가 망가져 마감을 늦게 넘긴 기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올해 봄 호도 마쳤습니다. 편집장의 위치에서 바라보니 그래도 다들 바쁜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 고맙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의 고난을 발판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삽화를 그려준 김재하 기자, 어렵디 어려운 사설을 선뜻 자원한 최유경 기자등 그 밖에도 고생해준 여러 기자들과 간디인들이 함께한 봄 호가 나오니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간디인을 쓸 때도 이렇게 뿌듯하다면, 다른 기자들도 그러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봄에 가라앉았던 배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는 올라왔는데 아직 진실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3년이란 시간을 울며 싸웠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정부의 기억 속 세월호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하고 맞서고 싶습니다. 계속 무너지지 않게 그때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후원인분들 모두 같이 있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박우제 기자 (3학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도 피고 춤기만 하던 덕산의 날씨도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못 보던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군요! 바로 신입생들입니다. 이번 코너에선 극과 극 풋풋하고 혈기왕성한 1학년들과 학교를 떠나 곧 세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는 5학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기자:** 자기소개를 해줘.

**박성현(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박성현입니다.

**이담(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이담입니다.

**하성(5학년):** 저는 5학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아졌나? 전하성입니다.

**민혁(1학년):** 저는 1학년 양민혁이라고 합니다.

**기자:** 학교의 첫 인상이 어때?어땠던 거 같아?

**담:** 자유로워 보였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깐.

**성현:** 자기들이 스스로 생활하는 게 신기했던 거 같아.

**기자:** 지금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민혁:**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재밌는 생활 중이야. 요즘은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 수업 듣고 있어.

**하성:** 들어야 하는 수업 듣고 또 별다른 거 안 하고 지내. 이제 개인무빙도 가야 하니깐 준비 중이지.

**기자:** 기숙사에서 지내는 느낌이 어때?

**민혁:** 편하게 있는 것 같아. 형들도 착하게 대해주고, 하지만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어.

**담:** 같이 생활하면서 눈치도 많이 보이게 되고 집에서 규칙 없이 살다가 오니깐 규칙 지키는데도 시간이 걸렸어.

**기자:** 혹시 옛날에 기숙사는 어땠어?

**성현:** 우리 때는 언니들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지. 2층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언니들끼리 막 수다 떨 때 우리 학년 이야기 들으면 긴장되고 그랬던 거 같아.

**하성:** 막막한 느낌이었어. 1학년 들어오면 당연하게 선배들 심부름 해줘야 했거든. 물 떠와라, 마사지 해줘라, 매점



가서 라면 사와라 등등 위압감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

**기자:** 그 때 학교는 어땠어? 지금은 어떤 거 같아?

**하성:** 대학교 같았어. 선배위주. 대학교에선 1학년들 오면 막 '엎드려뻥쳐' 이런 거 시키잖아. 진짜 그런 학교였던 거 같아.

**민혁:** 평화로운 거 같아. 별일도 없고. 하지만 우리 반은 너무 많이 싸워... 맨날 욕하고 의미 없는 장난하고 그래.

**기자:**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을까?

**성현:** 생활이 달라졌어. 우리 때는 언니들에게 놀려 살아야 됐거든... 생활에서 서로 지켜줘야 되는 규칙도 먼저 알고 행동해야 했고.

**하성:** 1학년들이 사는 환경이 달라진 것 같고. 또 고학년이 된 거?그 정도? 잘 모르겠어.

**기자:** 1학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성현:** 되게 발랄하거나 싶어. 대부분은 들어와서 처음엔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 2학기부터 적응해서 지냈단 말이

야.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애들이 친화력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하성:**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 그냥 형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기자:** 5학년 선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담:** 5학년을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데 왠지 다가가기 힘들어. 말 걸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것 같아.

**민혁:** 되게 불편하게 살았을 거 같아. 그때는 백지화가 안 돼서 핸드폰도 못 쓰고 매점도 못 가고 했을 거잖아.

**기자:** 17학년(1학년)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낮가림이 엄청 심했어. 근데 우리 반 애들은 낮가림도 없고 친화력도 좋아서 먼저 다가와주고 그랬거든.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 민혁: 고생길이 열린 거 같았어. 뭐가 애들이 하나같이 시



# 식구가 생겼어요

안재형 선생님

끄러웠거든.

**기자:** 13학년(5학년)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느낌 받은 거 없을까?

**하성:** ‘아~ 이 친구들이 6년간 같이 지낼 친구들이구나.’

**성현:** 근데 그때는 ‘우리 반이 어떤 느낌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 신났지. 새로운 애들 만나고, 친구 사귀고 이런 게 좋았거든.

**기자:** 1학년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아?

**담:** 학교에서 많이 떠들고, 산책도 하고 그래. 백지화가 돼서 핸드폰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성현:** 우린 도서관에서 떠드는 걸 제일 많이 했지.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떠드는 문화가 되게 사라졌는데. 나 저학년 때는 난로 하나 켜놓고선 학년 불문하고 쉬어서 떠들고 했던 게 많았어. 그래서 도서관에 많이 갔던 거 같아.

**기자:**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봐봐.

**성현:** 5학년들 무서워?

**담:** 무섭지는 않은 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깐 다가가기가 웬지 그래... 항상 보면 되게 잘해 주는데 친해지기가 아직은 조금 그래.

**민혁:** 만약 우리 반이 그 시절에 입학했으면 어떨 거 같아?

**하성:** 너희 1학년이 내 세대에 입학했다... 과하게 말하면 자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땐 형들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들었어. 지금은 다르니깐 친구들과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친해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해주듯 늙은 5학년 이었습니다. 몇 년 후엔 여기에 있는 1학년들도 언젠가는 멋진 선배가 되겠죠? 그런 날을 기다리며 기자는 물러가겠습니다. 인터뷰 해준 담이, 민혁이, 하성이형, 성현누나 고마워요~ 🍀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는법. 간디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농사와 1학년 부담임을 맡은 안재형 쌤, 작년 컨설팅의 인연으로 교장이 되신 이병곤 쌤. 이전 친숙한 두 분이지만 후원인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두 분의 인사말 재밌게 읽으시고 열렬히 환영해주세요!!

## 새로 온 농사쌤

“쌤 이번 간디in에 글 좀 써주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마감은 4월 10일이고 A4 한 장 정도면 되요.”  
 때는 3월 초, “ㅇㅇ아, 이것 좀 도와줘”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 나지 않아 부탁도 못하고 우물 우물 입안에서만 말이 맴돌던 때에 ‘나는 학교에 좀 오래 살았어’ 라는 여유로운 아우라를 풍기는 학생이 뚜벅 뚜벅 와서 이런 부탁을 했었다. ‘쌤들이 오면 당연히 하나보다’ 하는 생각과 ‘A4 한 장 정도면 뭐’ 라는 생각에 흔쾌히 “알았어” 라고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게 3월이 지나가고 4월도 지나서 마감일도 넘긴 11일 밤에 이 글을 부랴 부랴 쓰고 있

는 사람은 25살에 간디학교 농사쌤으로 온 안재형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면 실상사 작은 학교(중학교) → 산청 간디(고등학교) → 풀무학교 환경농업 전공부(2년제 대학) 이렇게 총 8년 정도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더군다나 지금 제천간디학교까지 왔으니 거의 대안학교계의 살아있는 화석쯤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졸업한 학교들이 어땠는지’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다음에 좋은 질문이 들어오면 답해 주는 걸로 하고 이번 호에는 ‘25살에 왜 대안학교에 교사로 들어왔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게요.

## 25살

'25살', '이십대 중반', '반 오십' 등등 다양한 말로 불리는, 이제 좀 많이 컸다 싶은 나이지만 여전히 "그 나이에는 놀아야지!" 하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안 학교 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일에 치일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더군다나 농사교사 라니!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멋진 여행 영상을 보고 책을 봐도 '저기 놀러가고 싶다' 라던가 '여행 꼭 가야지!'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수업을 빠지고 놀러 갈 수 있어서 그런지 놀다는 것에 대해 갈망이 별로 없어요. 멋진 여행지를 보면 오히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저렇게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벌써 애늬은 걸까?

## 왜?

지금 제천간디에 왜 오게 되었나? 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과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두가지 이유에서라 생각이 들어요.

요 몇년간 정원을 계획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에 배웠던게 농사일 이었다보니 보니 '텃

밭정원'이라는 것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어요. '텃밭정원'이란 먹을 것을 수확 할 수 있는 밭이면서도 예뻐서 소풍으로도 갈 수도 있는, 정원 같은 밭을 만드는 개념인데 제천 간디에서 같이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밭으로 소풍을 가고, 학교 밭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주변에 있는 상추로 쌈 싸먹고 하는 풍경을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산청 간디에 있을 때 '경당'을 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희석쌤이 연락이 와서 농사 선생님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다 싶어요.

## 마무리

쌤들 평균나이보다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가 더 적은 나이(!)라 놀듯이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축구도 좋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피아노도 더 배우고 싶고 등등 욕심이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같이하며 재미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농사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 언제나 찾아와요!!!



# 놀이, 책, 그리고 글쓰기로 성장했던 소년 시절

이병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3월부터 교장으로 일하게 된 이병곤입니다. 이미 한 달 보름을 함께 생활했는데 새삼스레 저를 소개하려니 쑥스럽네요. 저는 1965년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났어요. 말이 서울이지 도시와 농촌 사이쯤 되는 작은 동네가 제 고향이지요. 그 시절에는 공부 스트레스도 없었고, 과외도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면 골목길과 뒷산, 공터, 앞마당에서 노느라 바빴어요. 당시엔 동아리 활동도 없었기에 아마 지금 간디인들이 보내는 하루보다 저의 유년시절이 더 여유 있었을 거예요.

놀다 지친 그 사이사이에 눈에 띄는 책들을 마구 읽었어요. 아무 계열도, 순서도, 난이도도 따지지 않고, 그저 어떤 스토리에 제 정신이 엮이어 들어가는 것이 즐거워서 읽었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별로 겁나지 않았고,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흑백 TV에 폭 빠져 있기는 했지만 만화 틀어주는 6시 무렵부터 7시 사이에만 주로 보았죠.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매달 학업 성적표를 나눠줬는데, 반 등수와 전교 등수가 적혀서 나오더군요. 그게 늘 부담이 되었어요. 공부는 피만 내어서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릴 정도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렇

게 요령을 피우면서 놀기와 공부하기를 적당히 섞어가며 살았죠.

1980년대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휘두르는 체벌, 학생들이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이 아주 심했어요. 학교라는 말을 들으면, 공포와 경쟁, 깨달음 없는 일방적 지식 전달 장소라는 생각이 절로 떠올라요. 그나마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 없었다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어린 제 가슴에 깊이 새긴 뜻이 있었죠. “내가 어른이 되면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스스로 했던 그 약속은 지금까지 한번도 깨지 않고, 지켜왔어요. 폭력이 난무하던 중고교 시절이 너무 싫어서 오히려 비폭력을 꿈꾸고 지금까지 실천한 셈이니 참 앞뒤가 안 맞지요?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물론 글을 쓰느라 계획을 잡고, 한 글자씩 원고지를 메워나가는 과정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제가 썼던 수필 하나가 교지에 실렸는데, 원고지에 비뿔배뿔 적었던 손글씨가 마법처럼 깔끔하고 멋들어진 활자로 책에 박혀서 나오니까 묘하게 흥분이 되더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에서는 문예반에 들어가서 시를 쓴다고 우스운 품도 잡아

봤고요, 대학시절에는 학교 신문사 기자 노릇을 하면서 3년 내내 편집실로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첫 직장 역시 교육전문 잡지의 취재 기자로 시작했지요.

글을 쓰면서 두 가지를 스스로 배웠어요. 하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읽거나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성장을 한 다음 그 내용을 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 쓰느라 애를 쓰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크게 내 정신이 자라는 것이라 느낀 거예요. 작지만 큰 깨달음이었죠. 어느 정도 힘든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조금은 있어야 성장이란 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교장 일을 시작한 첫 주에 현관 문앞을 지나는데, 1학년 신입생이 대뜸 묻는 거예요. “곤쌤, 교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그건 말이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문을 열고, 학교 예산, 교사 채용,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협력 등등 멋진 말들을 가져다 붙였어요. 질문했던 학생은 ‘아, 그렇군요’ 하는 표정으로 약간 멍~하게 저를 쳐다보다더군요. 얼마 뒤에 저는 그 신입생에게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너희가 이곳에서 지

내는 것이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러 왔어. 다른 곳보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죠.

그걸 잘 하는 방법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솔하게 강의를 해보았고, 입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논술지도를 전문으로 했던 적도 있었지만 ‘교육이란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내놓지는 못하겠네요. 저에게는 행복한 유년, 불안했던 청소년기가 있었고, 저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던 부모님의 ‘그옥한 무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책과 글쓰기가 있었다는 또렷한 경험, 그것 하나만 확실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교장실 문은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지나다가 언제든 제가 방에 있으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제가 벌써 나이는 오십 줄에 들어섰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칠없는 아이가 뛰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쫄쫄’ 여러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



# 덕후들의 커밍아웃

이한슬 기자 (5학년)

덕후란? 일본어로 광적인 마니아를 뜻하는 '오타쿠'를 한국버전으로 바꿔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요, 덕후들이 영상을 찾아보거나, 콘서트에 간다거나 등등의 활동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때 덕후들이 무시당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드디어! 덕후들의 거센 반발(?)과 시대가 변하면서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덕후들이 슬금슬금 일코해제<sup>1</sup> 선언을 하고 있죠. 세상은 넓고 다양한 덕후들이 존재하듯이, 학교는 좁지만 다양한 덕후들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학교엔 어떤 덕후들이 살고 있을까요?

\*주의: 덕후들만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음.

## 농구선수 덕후 3학년 김재하

Stephen Curry(스텝 커리). 풀 네임 Wardell Stephen Curry II(아델 스테판 커리 2세).(이하 커리) NBA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고 있고, 작고 약한 신체조건을 이겨내고 NBA에서 성공한 선수이다. 내가 이 선수를 처음 본 건 2015년 NBA 파이널. 그 당시에는 키 크고 덩크

잘하는 걸로 유명한 선수가 아닌 슛으로 성공한 선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NBA를 처음 봤다. 그 때 커리는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공을 골대를 향해 던지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수준이었다. 난 그 모습에 순식간에 팬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커리가 단순히 슛만 잘 쏘는 선수인 줄 알았고, 1학년 무빙<sup>2</sup>이 겹쳐 그 후의 경기들은 시청하지 못했기 때

문이었다.

내가 커리와 커리의 경기를 본격적으로 챙겨보게 된 건 그다음 해인 2016 시즌이었다. 그 시즌의 커리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다. 한 경기 최다 3점 슛 성공 동률 기록과 동시에 13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가 버저비터<sup>3</sup>로 승리하는 경기도 있었고, 헬프코트(경기장 중간)나 그 뒤에서 던진 슛이 꾸준히 림으로 빨려들었다. 그리고 커리 자신이 지난 시즌에 세웠던 한 시즌 3점 슛 최다 성공 신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커리 소속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마이클 조던이 있던 시카고 불스가 세웠던 시즌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리그 1위를 달렸다. 비록 이 시즌에 우승을 못했긴 했지만 즐거운 시즌이었다.

이번 2017 시즌에서 커리는 감이 안 좋은 것 같다가도 한 경기 최다 3점 슛 성공 기록을 다시 세웠고, 지금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인다. 난 커리가 진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하지만 이긴 날에는 기분도 좋고 하는 일도 다 잘 된다. 이번 3월 14일 커리 생일에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페이지에 보냈다. 답장이 없긴 했지만 뿌듯했다.

커리의 경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https://www.youtube.com/watch?v=RPnNFbINM9U> 여기에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한다. 이번 시즌 경기인데, 커리의 인생 경기 중 하나다. 내가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봤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다.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봤다니... 정말 커리는 매 경기가 대단하다. 커리 경기를 보는 건 내 삶의 즐거움 중 하나다.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하고 커리가 파이널 MVP를 받는 것이 내 바람이다. 꼭 그러길 바란다. 나는 커리가 잘하던 못하던 언제나 커리를 응원한다! 커리 파이팅!!!!!!

1. 일반인 코스프레 해제. 덕후가 아닌 일반인인 척하는 행동을 그만한다는 뜻이다.
2. 움직이는 학교.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학년별로 6월 달에 학교 밖 배움을 실천한다.
3. 경기에서 버저의 올림과 동시에 득점하는 것을 이르는 말.
4.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하는 드라마.



농구선수 덕후 3학년 김재하

## 배우 덕후 2학년 신주현

제천간디학교의 덕후라면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자신만만하다. 때는 저번 겨울방학! 평소에 웹드라마<sup>4</sup>나 단편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선한 웹드라마를 찾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웹드라마에서 혜준언니를





배우 덕후 2학년 신주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내가 원래 한 작품을 여러 번 돌려보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보다보니 혜준언니에게 어느새 빠져 있었다. 개인 SNS랑 공식팬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가입하게 된 게 덕질의 시작이었다.

혜준언니한테 입덕하게 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표정연기와 목소리인데, 그 웹드라마에 중간 중간 나오는 익살스러운 듯한 표정연기가 인상적이었고, 혜준언니 특유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멋있고, 닳고 싶었다. 계속 덕질하고, 팬카페에 글 올리고 하니까 그 배우님이 나를 기억해주시더라. 한번은 공식 팬카페 글에 진로와 꿈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글귀를 적어주시면서 나를 격려하는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동스러웠다.

이 배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일부터 우리는'이라는 웹드라마를 추천한다. 소속사에 대한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추리와 로맨스, 풍트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배우로서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연한

작품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 작품이 약간 4차원적이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트콤이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봐도 좋을 것 같다.

얼마 전에 '내일부터 우리는' 웹드라마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시사회 당일 학교 일정이랑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못가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쉽지만, 팬으로서 혜준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다. 팬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덕질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덕질의 최종 목표도 마찬가지다. 좋은 힘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면 나도 같이 행복해진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덕질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다.

### 일본 성우 덕후 4학년 이령경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 카미야 히로시이다. 별명은 카밍이다. 글을 쓰기 전에 밝혀둔다, 나는 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다.

카밍의 대표작은 모노가타리 시리즈-아라라기, 나츠메 우인장- 나츠메, 하이큐- 타케짱 등등이 있다. 인기 초 절정 성우라서 맡은 캐릭터들도 많고 tv도 꽤 많이 나온다. 라디오도 고정으로 맡고 있다. 나는 '듀라라라' 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카밍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 때 맡은 이자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비열하고 짜증나는 캐릭터였는데 그런 못된 캐릭터를 너무너무 잘 연기했다. <(≥▽≤)~>

카밍은 발음도 좋고 대사 전달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멋있고 연기도 잘한다. 이 좋아함의 최종 목표는 결혼이다. 근데 카밍은 이미 결혼을 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난 아직까지 우리 둘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빠져들 것 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래도 카밍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카밍 말고 나카무라 유이치(이하 나캄)라는 다른 성우랑 결혼 할 것이다. 그래서 카밍은 내 남편 친구고 내 남편은 나캄이게 되는 것이다.

### 남자 아이돌 '엑소(EXO)' 덕후 5학년 신비아

(유명 엑소 팬페이지<sup>5</sup> 운영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비스트나 비원에이포<sup>6</sup> 좋아할 때 뭐가 멋진지도 모르겠고 노래도 너무 별로라서 이해가 안



일본 성우 덕후 4학년 이령경

갔다. 그때만 해도 평생 아이돌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엑소의 '늑대와 미녀'를 듣고 입덕<sup>7</sup> 해버렸다.

2학년 때 친구랑 도경수<sup>8</sup>를 봤는데 진짜 이진 인간의 미모가 아니었다. 통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다리의 반의 반만했고, 얼굴은 주먹만 했다. 연예인들 얼굴 주먹만 하다고 하는 거 다 오버 떠는 줄 알았는데 진짜 리얼 주먹만 하다.

실물을 한번 보니까 내가 통장을 털어서라도 엑소를 보러 다녀야겠구나, 생각했다. 무대인사 때문에 학교 무단

5.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덕질하는 연예인 사진, 동영상, 정보 등을 업로드하는 페이지.

6. 남자아이돌 그룹.

7. 덕질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

8. 엑소의 멤버. D.O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 아저씨, 누구세요?

최유경 기자 (4학년)



외출<sup>9</sup>해서 욕도 드럽게 많이 먹었다. 그때 같이 갔던 남덕<sup>10</sup>이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트위터<sup>11</sup>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 3학년 때 밤샘도 하고 알바도 뛰고 별 난리를 쳤다.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밤새면서 트위터도 했다.

오피셜로 열애설<sup>12</sup> 터졌을 때 울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해봤는데 올해 1월 달에는 생각해봤다.(엑소 멤버 첸 열애설)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탈덕<sup>13</sup> 위기가 왔다. 진짜 탈덕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헬렌레 펠렐레 직캠<sup>14</sup> 찾아보는 내 모습 보고 탈덕은 글렀다, 싶었다.

덕질하면서 빈부격차를 많이 느꼈다. 내 친구 중에 엑소 랑 밥도 먹은 애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친구도 있다. 삼촌이 SM<sup>15</sup> 직원인 친구도 있고, 그냥 인맥 넓은 친구 들밖에 없는데 나만 인맥 없다.

알고 보면 학교에도 수많은 덕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서는 친구들이죠. 무언가를 열광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덕후들을 만나고, 언젠가 입덕하길 바랄게요! 🐶

9. 그때 당시 백지화 전이기 때문에 공적인 이유 없이 학교 밖 외출 금지였다.

10. 남자가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남덕이라고 한다. 여자는 여덕.

11. SNS이자 덕후들의 결정체. 한국 덕후들은 거의 다 트위터를 통해 서로 소통한다.

12. 공식적으로 기사화 되지 않고 팬들 사이에서 터진 열애설.

13. 덕질을 그만두는 것.

14. 방송사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직접 캠코더로 찍은 영상. 팬들끼리 SNS 등에 공유한다.

15.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되어 있다.

학교가 새로운 학기를 맞을 때면 무릇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2017년 새 학기의 변화라면 단연 4년이 넘어가도록 교장실을 지켜오시던 손진근 선생님을 대신하는 뉴 페이스의 등장일 것이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선출 과정을 거친 이병곤 선생님께서 제천간디학교 3대 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고, 새 교장이 선출된 만큼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니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그저 새로운 교장을 동네 아저씨마냥 낯설게 쳐다볼 뿐이다.

### 학생 참여는 고작 21%?

2016년 하반기, 가칭 미래발전위원회<sup>1</sup>가 제천간디학교 이사회→교사회 제안으로 발족되었다. 미래발전위원회

1. 이후 정식 명칭은 학생 공모로 '미래를 생각하다' 이하 미생으로 결정됨. 기사상에는 분량의 문제로 표기하지 않음.

2. 학교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작년 상반기 제천간디학교 컨설팅이 진행됨.

(이하 미발위)의 목적은 이전에 이루어진 컨설팅<sup>2</sup>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간디 공동체와 학교를 세우는 것. 초대 교장 양희창 선생님을 필두로 미발위의 인원은 교사 4명, 학부모 2명, 이사 2명으로 이루어졌고, 학생은 모집했으나 자발적 참여 인원이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미발위가 구성된 후 첫 활동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체 학부모 참여 대토론회. 이 다음으로 차기 교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미발위에게로 떨어졌다. 당시 교장이었던 손진근 선생님은 2016년 8월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였지만, 교장 선출 준비를 위해 2016년 마무리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미발위는 2016년 11월 25일 미발위의 이름으로 교장 후보 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선출을 시작했고, 방학이 시작된 이후인 12월 18일 모집된 두 후보의 정견 발표를 주최했다. 교장 후보들이 교장이 된다면 어떤 학



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발표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은 교장 14명이었다.**

2017년 1월 1일 자에 진행된 미발위 회의에서 교장 선출 방식이 '추대'로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도 물론 학생은 없었다. 곧이어 1월 7일, 정견 발표에 참석했던 학생들 중 약 10명이 교장 추대 자리에 있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전교생 중 교장 10명이 학교의 장을 추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각자 전국각지에 떨어진 집으로 귀가했으니 개인 사정 상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참석뿐만 아닌 모종의 관심조차 없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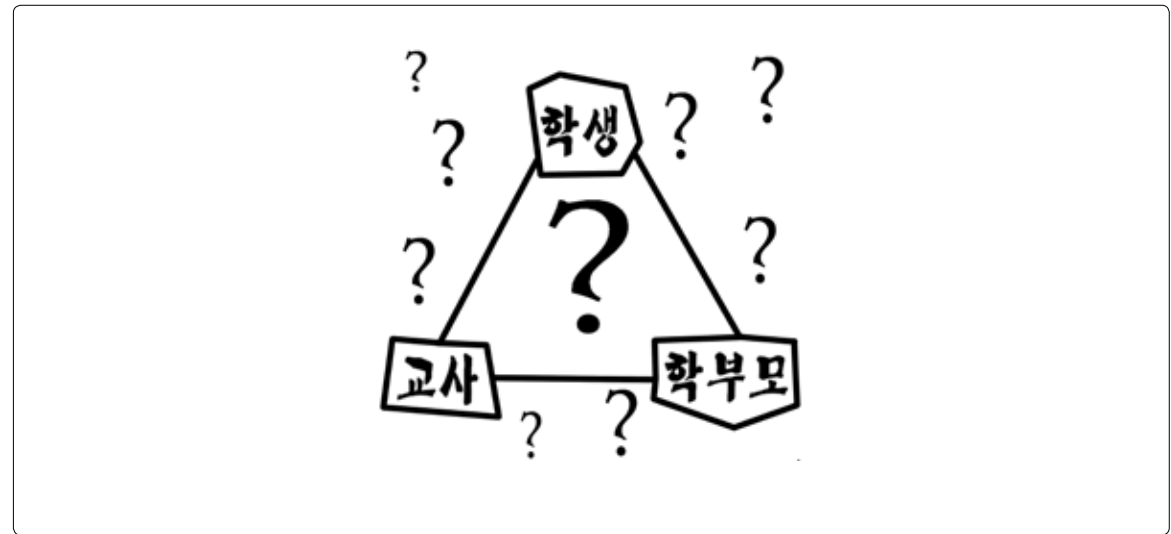
2017년 기준 1학년, 6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에게 설문한 결과 **현재의 교장이 선출된 방식을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4%,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교장 정견 발표에 참석치 못한 구성원들을 위해 공동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장 후보들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 계획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4%뿐이다. 이는 새 교장이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

교를 이끌고 바꿔 나갈지 34%의 학생들만이 알고 있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이루어진 삼 주체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는 학교 가치와는 많이 어긋난 설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선출은 왜 방학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취재하며 공통으로 나온 이야기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방학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진행된 선출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출 시기는 어째서 방학이 되었을까? 미발위의 일원이었던 황선호 교사 대표와의 인터뷰에는 분명 미발위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참여가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렇다면 미발위는 교장 선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발위의 일원이자 학부모 이 사인 최주영 님을 인터뷰했고,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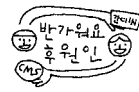
기존 교장 선출은 올해 교장 이·취임식 날짜였던 3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였다. 하지만 미발위에선 시기상 그렇게 진행된다면 최소 1년간 교장의 부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고, 또한 이사들의 강력한 의견 피력으로 방학이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적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된 까닭으로 선출은 결국 겨울 방학 기간에 진행되었지만, 미발위는 이렇도록 학생들의 참여가 부진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 애초에 교장 선출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엉뚱하게 제3의 안을 가져오려는 노력은 어리석다. 잘 갈무리하기! 구성원들이 좋은 과제를 발굴하여 그것을 스스로 성공시키기! 실패의 악순환을 성공적 경험의 선순환으로 바꿔 놓기! 보물 같은 서말의 구슬들을 어떻게 꿰어 낼 것인가. 허공이나 진공상태에서의 제시가 아닌 2016 세밀의 제천간디라는 현장에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는 박상현 교장 후보의 운영계획서 중 '운영계획'에 해당하는 일부다. 극히 일부를 첨부해 놓았지만 학생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후보들의 운영계획서를 읽어보았다고 설문에 응답한 4학년의 한 학생은 인터뷰 중 '내용이 너무 길고 장황했으며, 읽기에 너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필자는 학생들을 독자로 설정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해 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박상현 선생님께 '학생들이 읽기엔 어려웠다, 의도가 어떤 했느냐' 라고 물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운영계획서의 다른 버전을 작성했을까지만, 시간도 여의치 않았을 뿐더러 교장을 선출하는 주요 대상이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운영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엔 교장 선출이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교장 후보조차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교장 선출 자체를 주관한 미발위에 학생 위원이 없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오류였다. 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모든 선택에 학생들의 생각, 혹은 학생의 시선이 배제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모두 미발위 안에서 의논한 교



장 선출 방식, 교장 선출 시기 등 중요한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학생들의 의견이 없는 결정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부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 선출 이후 대처는 어떠했나

방학에 진행하게 된다고 학생들의 참여가 부진할지 몰랐을 수 있고, 교장 선출에 있어 학생 중심이 되지 않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다만 학기가 시작된 후 이미 선출된 교장을 알리려는 시도도 부족했다는 건 또 다른, 2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새 교장이 선출되고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 간담회는 중·고등 모두에게 있었다. 다만 문제는 간담회가 앞으로 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가 아닌, 그저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에겐 교장 선생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보단 우리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를 전해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 한 마디로 학생을 위한 교장 간담회가 아닌 교장을 위한 교장 간담회였다.

이 교장 간담회 이후엔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미발위는 잠정 해체 수순을 밟았고, 선출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과 선택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도 누구에게도 없었다. 학생들은 또 그렇게, 항상 그랬듯 낮은 열정과 변화하는 학교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적응해 갈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딱 잘라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다. 서툴렀던 교장 선출 과정에 대해 작은 핑계를 대자면, 제천 간다가 진행하는 ‘첫’ 교장 선출이었다는 것이다.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하며 부족했고, 학교의 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정작 학교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엉망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기사조차 그 문제점들을 낱알이 이야기하고 꼬집기 위해서 쓰였다. 다만 실패란 성공을 위한 발돋움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4년 후의 보다 성공적인 교장 선출을 기대하며, 이 기사를 마친다! 🍌

# 프로 불편러들의 만남

권윤서 기자 (2학년)

이번 호에서는 졸업생인 듯 후원인인 듯 졸업생 같은 후원인을 인터뷰 했습니다. 화석 급 선배님 '04학번 이슬비'에서 '후원인 이슬비'가 된 이슬비 후원인을 만나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바쁘셨다고 하는 이분! 지금도 바쁘셔서 약속잡기가 힘들었는데요. 전 프로 불편러<sup>1</sup>를 현 프로 불편러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슬비님과의 인터뷰 보시죠!!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스물일곱 살이고, 간디학교를 졸업한, 지금은 가족공예를 하고 있는 프로 불편러 이슬비입니다.

### 왜 프로 불편러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웃음). 그래서 불만들을 맨날 가족회의 때 얘기해서 저 때문에 가족회의가 안 끝났었죠.

### 그때의 학교는 어땠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반대

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이유 없이 정해져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그 때는 지금의 학교와 다르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끌려온 사람도 많아,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있나요?

저는 도서관에서 낮잠 자는 걸 정말 좋아해서 책은 안 읽고 맨날 잠만 잤어요. 제빵작업장에서 나오는 간식도 정말 좋아했구요.

1. 프로 불편러: 불만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



**간디학교의 필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간디의 필수 교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필수교과가 파격적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고 느껴요.

**만약, 다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간디학교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전 다시 간디학교를 선택할거예요. 대신 많은 수업과 동아리, 소모임들을 하진 않으려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은 후회돼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인데, 그 때 많이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백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왜 이렇지 저거는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백지화처럼 파격적인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

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가족회의에서 끊임없이 토론했어요. 저는 백지화에 대한 결과 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백지화를 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백지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과정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홈스쿨링을 하면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학교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롯데리아 알바를 했어요. 학교에서 먹거리와 인스턴트에 대한 것을 다 배우고도 돈이 필요해서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죠. 그 뒤에는 제가 다녔던 대안 중학교, 마리학교 마리학교<sup>2</sup>에서 일하다 우연히 연이 닿게 된 강화뉴스라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강화뉴스를 그만 둔 뒤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으며 모아뒀던 돈을 다 써서 급히 키즈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키즈

카페가 적성에 맞아서 일 년 반 정도 했어요. 지금은 가족 팔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았던 일이 있나요?**

다 좋았지만 기대했던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럼 반대로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저는 일상다반사를 했었고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죠. 인터뷰 하는 건 재밌고 좋았는데, 신문 기사는 중립적이 여야하고 논리정연 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팔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원래는 부모님 일을 도와 드리려고 시작했어요. 어릴 때 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적성에도 맞아서 계속하게 됐네요.

**가족팔찌의 좋은 점이 있나요?**

보통 손으로 하는 게 다 그렇듯이 가족 팔찌도 한 가지 기법만 알면 원하는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돈 벌기도 힘들실 텐데 학교를 후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을 때 협동경제라는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그 때 좋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유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간디학교가 회사는 아니지만 계속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마리학교라는 중학교도 사라져서 간디학교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후원하면서 보는 학교는 어떤가요?**

글쎄요...그냥 졸업생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간디학교에서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서 제가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야 해요. 또, 프로블펀러들은 많이 표출해야되요. 생각만 하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아요. 학생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히 생각하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자급자족으로 살고 싶어요. 가진 것을 줄이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쓸 계획이에요. 일단 제 가치관에 맞으면 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금 같은 주말 시간을 내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 하러 갔다 오히려 힐링하고 왔네요. 앞으로 이 슬비님이 하는 일 모두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서울도 구경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학교에도 많이 놀러오세요!~ 🐼



# 개 요즘 잘 지낸대?

김예림 졸업생

새학기를 맞아 준비한 코너! 학교를 떠나 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졸업생의 이야기를 담은 '개 요즘 잘 지낸대?'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년에 졸업한 11학번 김예림 졸업생. 학생시절 일상다반사 기자였던 그녀가 졸업 후 신문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그럼 김예림 졸업생의 독립이야기. 들어볼까요?

작년 졸업식 날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제천을 떠나는 묘한 해방감,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우쭐한 기분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졸업식 뒷정리를 끝내고 강당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힘들었던 곳에서도 버텼으니, 그것도 일상다반사며 학생신문이며 개고생을 사서하며 보냈으니 어딜 가든 잘 살지 않을까. 주머니에 손을 찻고 답답할 만큼 하늘을 덮은 별을 봤다. 이때는 반짝이는 조명과 박수소리, 강당 안의 열기 같은 것들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 내 인생의 다음 관문이 설레이기만 했다. 그래, 어쩐지 겨울밤 공기가 차더라.

옥천신문에 취직했다. 정확히는 옥천신문에서 만든 '문

화컨텐츠사업단 고래실'의 기자로 취직했다. 지역문화컨텐츠를 제작하는 고래실의 주요사업인 옥천 문화잡지 '옥이네' 6월 창간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평소에는 지역을 익히기 위해 기자님들을 따라다니고 명함을 돌린다.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학교에서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공을 들인다. 일단은 배우자는 생각이다.

배운다. 나는 거의 매일 실수를 하고 매일 꼼꼼하지 못하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수족관 운영하는 사장님 인터뷰 기사를 쓰다 '연중무휴'를 '연중휴무'로 쓴다거나, 지역에 있지도 않은 초등학교가 나온다거나,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이름이 틀린 적도 있다. 사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얼렁뚱땅 어수선한 사진을 찍어갔다가는 좁은 지면에서



밀려난다. 요란하게 찍어간 사진이 실리지 못하면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실망까지 떠안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지 않던 습관이 생겼다. 내가 쓴 글을 읽고 또 읽는다. 확실히 이는 게 아니면 다시 확인한다. 사진을 찍고 또 찍고 직접 사람과 물건을 배치해 구도를 만든다. 짬이 나면 잘 찍은 보도사진을 본다. 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나는 겨우 스무살이고, 신입이고, 여자다. 스스로 한계 짓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단순한 특징이 가진 영향은 분명하다. 누군기는 내 명함을 받지 않는다. 또는 자신의 명함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빨리 똑똑해 질 것이라는 다짐과 동시에 늘어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어리니까 더 이 악물고 하려는 무게. 내 경험으로 더 해내지 못하는 생각, 내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하는 말 같은 것들이 참담하게 다가온다. 아무리 용을 써도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건 슬프지 않다.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안다. 알차게 나이먹자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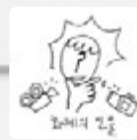
졸업하며 가장 먼저 결심했던 건 독립이다. 불과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은 스무살에 이렇게 작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내 그릇이 어떤지는 모르나 일단 혼자 일어나보자는 생각이다. 그런대로 재밌다. 학교에서 죽어도 하기 싫던 공부, 한 마을에 이장과 부녀회장이 미치는 영향,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 버리는 법, 지역에 공장단지가 지어지는 과정, 그 관점의 차이, 색과 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즐겁다. 자취집 옥상 텃밭에는 상추를 심었다. 씨를 뿌린지 2주 만에 싹이 났다. 싹이 성큼 자라 상추가 되면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초대할 생각이다. 해야 할 걸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많아졌다. 독립운동가는 아니어도 일단 독립 김예림이 됐다.



다들 대안학교 졸업생의 생활을 궁금해한다. 하긴 나도 이 학교 나와서 뭘해먹고 사나 궁금하긴 했다. 안타깝게도 별거 없다. 거창한 고민을 하며 살기에 세상은 아직 흑독하고, 내가 배운 가치들이 어딘가에서는 허무맹랑한 것이 된다. 지난주의 절반은 첫 월급을 어디 쓸까 고민하는데 보냈다. 오늘 저녁에는 치킨에 소주를 먹었다. 아마 다들 그럴 거다. 생각하는 만큼 산다. 옥천의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 애쓴다. 진정으로 대안학교

졸업생의 삶이 궁금하고 응원하고 싶다면 옥천 월간 문화잡지 '옥이네'를 구독해주시기 바란다. 문의는 언제든지 저에게로. (김예림 010.8538.2773)

이 글로 여러 안부를 전한다. 아직 내 살길이 바빠 뭘 챙길 겨를이 없다. 누군가에게 개 요즘 잘 지낸대? 하고 묻고는 하는데 직접 묻지 못해 미안하다. 다들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길, 기회 닿으면 또 만날 수 있길 바란다. 🐶



## 그는 절대 지적이지 않다?

이성민기자 (2학년)

이번 화제의 인물은 간디인들 사이에서 지적인 이미지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이 머리말만 보고 누군지 알아챈다면 그는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과 성격이길래 사람들은 지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자기는 지적이지 않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Q.**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아, 존댓말 안 쓸게. 자기 소개 좀 해줘.

**A.** 간디학교에서 만 4년째 구르고 있는 5학년 이창기고, 공식적으로 학교 5학년의 반장을 임하고 있고, 학생신문의 현 편집장.

**Q.** 요즘 어떻게 지내?

**A.** 요즘 좀 바쁘고 힘듭니다. 학생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Q.** 학생신문하면서 힘든 점이 뭔데?

**A.** 그나마 덜 힘든 건 글을 못 쓰는 거. 그건 서로 커버 쳐 주면서 쓸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건 서로 안 만나고 서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왜냐면 신문이라는 성격상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진중한 토론을 하거나 자기 생각이 뿔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방향성

을 잡거든. 단합이 안되는 게 제일 최악이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래도 신문하면서 항상 힘들기만 한 건 아니고, 1호 냈을 때처럼 뿌듯할 때가 있지. 그 때 우리는 신문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 책정을 해서 이제 글만 나오면 되는데 감이 안 잡히니까 글을 못 쓰겠는 거야. 결국 나는 커버스토리엔 한 글자도 못 대고 끝났지만, 민석이형 하는 거 도와주고 내가 <가집> 준비해서 신문이 딱 나왔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은 말을 못하지.

**Q.** 학생신문의 지향점은 뭐야?

**A.** 일단 신문이 시작 된 이유는 '학생들의 여론이 없다.'야. 학생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사회 스물몇 명한테 학생 백 명이 휩쓸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신문이라는 소통의 장이 하나 생기면 학생들의 여론이 생기고 그만큼 학생들의 권리, 힘이 세진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야. '학생들의 여론을 만들자. 공통된





생각을 만들자'가 제일 기본적인 중점인 거지. 또 그렇기 때문에 학생신문의 정신은 '외부의, 학생이 아닌 누군가의 간섭이나 검열이 절대적으로 거부되는 독립신문적인 성격이다.'까지가 깔끔한 정리.

**Q.** 지금 4호째를 내고 있는데 학교에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

**A.** 아직은 없다. 아직은 시작이다.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한 1,2년 걸리겠지?

**Q.** 이창기에게 학생신문이란?

**A.** 나에게 학생신문이란 밥줄.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당장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Q.**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빠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

**A.** 그런 거 말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

**Q.** 저번에 나랑 얘기했을 때 자기가 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유가 있어?

**A.** 실제로 안 그러니까.

**Q.** 그럼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A.** 음음... 병곤쌤.

**Q.** 학생 중에선 없어?

**A.** 학생 중에선...? 한 5학년 짬밥 먹으면 다 아래니까 그런 사람은 잘 안보이지.

**Q.** 이번에 교사회에서 1,2,3,4학년 멘토제<sup>1</sup>로 교육과정을 바꿔보려고 하잖아.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A.** 난 좋아. 어렸을 때 규칙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선배들과 안 친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공동체성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는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확실히 공동체 학교면 가족주의적인 걸 더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싶었어. 그런 의미에서 1,2,3,4학년 멘토제는 학교의 분위기를 확실히 반전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대안교육에 있어선 발전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어.

**Q.** 그 멘토제를 하면서 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갈 것 같아?

**A.** 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회든 집단이든 간에 소수가 따돌림받거나 뒤쳐지는 경우는 늘 존재해. 근데 그런 걸 없애자는 건 인간 본능에 대한 도전인 것 같아서 난 불가능이라고 보고, 그걸 안고 가는 것 정도는 학년제에 비해 멘토제로 발전했을 때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Q.** 내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고민했거든. 소속되어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기자로서 '인터뷰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줘.

**A.** 뭔가 되게 창의적이어야 해. 질문이란 건 안 보이는 면을 발굴하는 거야.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걸로 쓰기엔 뭔가 이렇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 가령 '평소에 잘 씻는 편이야.' 그런 거.

**Q.** 그럼 잘 씻는 편이야?

**A.**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그 정도면 평균 아닐까.

1. 학년별 학급이 아닌 1,2,3,4학년을 모두 섞어 10명 이내의 여러개의 반을 운영하는 '멘토제'. 교사회의 안으로 2학기 때 시행할지 논의 중이다.



**Q.** 샤워 30분 한다며

**A.** 그건 그냥 샤워를 좋아하는 거고.

**Q.** 다음 질문으로 좋아하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샤워라고 해도 돼?

**A.** 그래.

**Q.** 최근 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

**A.** 쓰음... 음... 집행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거? 제일 근본적인 문제지. 학교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그만큼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끔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Q.**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A.** 음 있어. 일단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다시 규칙 다박아 놓으면 관심이 좀 생길걸?

**Q.** 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나 제일 좋은 점은 뭐야?

**A.** 좋은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맥 중심적인 학교라는 거지. 쌤들, 학생들, 선배들을 잘 알게 되는 그런 거. 내가 3~4년 같이 보낸 걸로 평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는 (학교가) 초원이지 확실히.

**Q.** 앞으로 학생신문이든 뭐든 학교 다니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 2년 정도 남았나?



A. 많이 남았지.

Q. 많이 남은 건가? 암튼 앞으로의 계획 있어?

A. (도리도리)

Q. 봄인데 연애 계획은...?

A. 노코멘트.

Q. 알겠어. 안 물어볼게.

Q.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나 학교에게 한마디

A.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학생신문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와라. 이리다가 1년이구 뭐고 사람 없어가지고 못 만들 지경이야. 지금 거의 고학년 밖에 없거든.

번외- Playlist

요즘 많이 듣는 노래 - E SENS(이센스)의 비행, Sleep

Tight(슬립타이트), The Anecdote(에넥도트)

운동할 때 듣는 노래 - 이센스 노래

기사 쓸 때 - 이센스 노래

화장실 갈 때 - 이센스 노래

=요즘 이센스 노래밖에 안 듣는다.









가을이

16분 · 🌐

2017년 2월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있다. 여자기숙사 온수통에 문제가 생겨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단다. 이게 얼마만의 희소식인지 증말. 평생 안 고쳐졌으면 좋겠당. 예 예~~요오~~호우~~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놈들이 벌을 받는구나~~쿨루랄라~~나는 정환이가 맨날 집에서 따뜻한 물로 씻겨준다~부럽냐!! 꼬우면 정환이 주인으로 모시던가~~



가을이

5분 · 🌐

2017년 3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감옥 같은 학교에 16명의 아가들이 들어왔다. 벌써부터 저 자식들은 또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걱정된다. 이전 이런 처지도 진절머리가 난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들이 내가 만만해 보이나. 예호. 그래 나 끈대 맞아. 맞으니까 운동장에서 제발 꺼져. 너네 또 나 귀찮게 하기만 해봐. 확 그냥 운동장에 똥 싸질러버릴거니까. 증짱뽕뽕뽕. 내가 동네북인게 슬프고 짜증난다. 이런 전장.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다. 원래 나는 우주 최강 짱짱맨 가을인데!!! 까승~역시 난 우주최강이었어. 모두가 내 발 아래~호우!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요우 맨~





가을이

3분 · 🌐

2017년 3월

여자기숙사에서 도난이 났다고 한다. 바지가 두 벌이나 사라졌는데, 학교 강당에서 찾았다. 그것도 내가 찾았다!! 쿵쿵쿵. 내가 찾았어!! 위대한 가을이를 모셔라~!!! 내가 여자기숙사의 구세주다~~!! 앞으로 도난당한 물건 있으면 내가 다 찾을 거다~쿵쿵쿵. 내가 찾을 거니까 다 꺼져~쿵쿵쿵.



가을이

3분 · 🌐

2017년 3월

님들 우리학교 새로운 교장쌤 오심. 작년 우리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해주신 분인데 아직 나랑 어색함;;성함은 이병곤 선생님입니다. 아직 나랑 어색하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응 그래드 병곤쌤이 나의 라이벌인건 틀림없어. 뭐, 제법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는 까칠하고 도도한 이미지니까 이런 거에 마음을 쓸어줄 수 없어. 난 까칠하니까~☆★까르르. 아 참, 내가 얼마전에 교장실에서 수업받다가 너무 즐거워서 병곤쌤이 이번에 들고오신 완전 좋은 의자에서 잤는데 진짜 꿀잠. 거기에 누우면 너네 다 코글고 이갈면서 잘것이야. 너네도 빨리 병곤쌤이랑 친해져서 그 의자에 앉도록 해. 맞아 나 어색한데 사실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한번 앉아봤어. 죄송ㅋ





가을이  
2분 · 🌐

2017년 4월

원래 이성끼리 뛰던 4.19 마라톤을 이번에는 동성끼리 뛸 수도 있고 혼자서도 뛸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나. 에이 이번에도 정환이랑 뛰기 싫은데. 누구랑 뛸까나~~ 요즘 학교에서 제일 잘나가는 멧쟁이랑 뛰고 싶다. 응, 물론 나 혼자서도 멧쟁이지만 둘러리 한명쯤은 있어야하지 않겠어?? 내 옆에 서면 누구나 다 오징어가 된다고. 나는 원빈 강동원을 뛰어넘은 잘생김 끝판왕이야. 사실 우리 학교 애들은 못생겼지만 내 옆에 서면 더 못생겨진다고. 이런 걸 상대적 오징어 효과라고나 할까? 찢든 이번 4.19 마라톤 누구랑 뛸까나. 애들아, 컴은! 1등하고 싶으면 나랑 뛰자! 누나는 너네 쉬지않고 달리게 해줄 수 있다.(나 사실 여자야)



기자 후기  
Wwww  
!



권윤서 (2학년) 글기자

우와 드디어 2017년 봄호가 끝났어요!! 너무 힘든 한 호였습니다ㅋㅋㅋㅋ 마감도 못 지키고 하하하하하 그래도 후원인 인터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상다반사 화이팅!!!!



김담 (3학년) 사진기자

긴 촬영에 임해준 창기형한테 감사합니다! 와해 그리고 고생해준 성민이 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밌게 읽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와해 에헤 냅담~★



김서준 (1학년) 글기자

아직까지 기사를 쓰는 걸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제가 기자라는데 잘 믿기지 않네요. 한 것도 없는데 기자 후기를 올려하니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음 호 부터는 열심히 언니 오빠들 도와서 기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하 (3학년) 삽화기자

하...정말 이번에는 저번만큼은 아니지만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정말 뿌듯하군요. 특히 이번 호 스케줄러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만 그려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제가 글도 쓰게 됐습니다!! 덕후 기사를 읽어 주세요!! 으하하하 이번 호는 정말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일상다반사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다음 호에서 봅시다!!! MVP CURRY!!! NBA CHAMPION!!!



박우제 (3학년) 글기자

이번 기사 너무 날려 먹었나?...



이재형 (4학년)

신입기자 이재형입니다. 아직 학교가 어색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름이 되면 뜨겁게 만나요♥



**이성민 (2학년) 글기자**

일상다반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째네요:-D  
이번에 처음 화제의 인물을 만게 돼서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써 다음호가 걱정 되네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ㅎㅎ  
담오빠, 창기오빠 화보 찍느라 여러 모로 수고했고 도와준 문형언니 고마워!!  
다들 행복한 ❀봄❀ 보내세요~



**이한결 (4학년) 편집장**

재미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과 기자들 고맙습니다. 다음 호도 잘 해봅시다.



**이한솔 (5학년)**

비교적 가벼운 기사를 맡아 큰 부담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마감 못지켜서 편집장님께 정말 정말 죄송해요ㅠㅠ 일상다반사 파이팅!



**최문형 (4학년) 사진기자**

이번 호는 신경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4학년) 글기자**

무엇보다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취재와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읽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부족한 기사를 잘 이끌어 준 이 편집장, 정환 선생님, 툴툴거리면서도 잘 도와준 문형이에게 감사함을 전해요 ^.^~  
이번 봄 호도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에서 봐요♡!





정영학 (5학년, 휴학중)

비폭력 뒤에 폭력이 너무 많았다.